

심익운(沈翼雲)의 「열성어찰언서발」(列聖御札諺書跋)과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김수영*

[초 록]

18세기 문인 심익운(沈翼雲)이 쓴 「열성어찰언서발」(列聖御札諺書跋)은 『백일집』(百一集)에 수록되어 있는 발문(跋文)이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성어찰언서발」은 효종의 3녀인 숙명공주(淑明公主)가 효종(孝宗)·현종(顯宗) 및 장렬왕후(莊烈王后)·인선왕후(仁宣王后)·명성왕후(明聖王后)에게서 받은 한글편지를 수합해 만든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의 발문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는 「열성어찰언서발」의 전문(全文)을 분석함으로써 『숙명신한첩』의 주요 문헌정보를 새로 밝혔다. 또한 「열성어찰언서발」 중 ‘인선왕후어찰언서’(仁宣王后御札諺書)에 대한 심익운의 비평을 고찰하고, 이 글이 일종의 ‘서간비평’(書簡批評)임을 논했다.

*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심익운(沈翼雲), 「열성어찰언서발」(列聖御札諺書跋),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인선왕후(仁宣王后), 숙명공주(淑明公主), 서간비평(書簡批評)
Shim Ik-woon, Yeolseongeochaleonseobal, *Sookmyungshinhancheop*, Queen Inseon, Princess Sookmyung, Letter Critique

1. 머리말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은 조선의 제17대 국왕 효종(孝宗, 1619-1659)의 3녀인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가 효종(孝宗)·현종(顯宗, 1641-1674) 및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에게서 받은 한글편지를 수합해 만든 서첩(書帖)이다. 『숙명신한첩』은 현재 보물 제19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숙명신한첩』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것은 김일근에 의해서이다. 김일근은 1962년에 『숙명신한첩』을 입수해 이를 판독해 소개했다.¹⁾ 김일근의 발견 당시, 이 서첩은 표지가 탈락되어 얼마간 낙장(落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그 표제(表題)와 서발문(序跋文)이 없어 서첩의 원제(原題)와 원 소장자가 밝혀지지 못했다. 그렇기는 하나 김일근은 앞서 1955년에 발견한 효종의 4녀인 숙휘공주(淑徽公主, 1642-1696) 소장본 한글서첩과의 비교를 통해 이 서첩의 원 소장자가 숙명공주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일근은 이에 앞서 숙휘공주가 소장했던 한글서첩을 ‘숙휘신한첩’으로 임의로 명명한 바 있다.²⁾ 그와 같은 방식으로 김일근은 숙명공주가 소장했던 표제가 없는 이 한글서첩의 제목을 ‘숙명신한첩’으로 임의로 명명했다.³⁾ 『숙명신한첩』은 2009년, 청주박물관에 수장(收藏)되었다. 그 후 2011년, 『숙

1) 김일근은 1962년 가을에 전형필의 계씨(季氏)에게서 『숙명신한첩』을 입수했다. 당시 그 소장자는 이 서첩이 ‘수원(水原) 백씨(白氏) 처백모(妻伯母)의 가장본(家藏本)’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일근(1991), 『諺簡의 研究: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제3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p. 61. 이 책의 초판은 1986년에 출간되었다.

2) 이 서첩의 표제는 ‘宸翰帖 坤’이다. 이 표제는 숙휘공주의 후손인 정진석(鄭晉錫)이 1802년 중추(仲秋)에 날 편지들을 엮어 서첩으로 장정하며 임의로 붙인 것이다. 장요한(2019),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pp. 11-12 참조.

3) 김일근(1991), pp. 61-62.

명신한첩』의 영인 자료와 판독문이 실린 책이 발간되었다.⁴⁾ 이에 국문학·국어학·국사학·문헌학·서예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숙명신한첩』에 수록되어 현전하는 편지는 총66첩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왕실의 한글서첩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이다.⁵⁾ 무엇보다 『숙명신한첩』은 두 국왕과 세 왕후의 친필 한글편지가 수록된 서첩이기에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신한첩』은 그 서발문(序跋文)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아 문헌에 대한 고찰에 난점이 있었다.

필자는 수 년 전 18세기 문인 심익운(沈翼雲, 1734-1783)의 문집 『백일집』(百一集)을 검토하다가 거기에 실려 있는 「열성어찰언서발」(列聖御札諺書跋)을 읽고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⁶⁾ 그 뒤 필자는 심익운의 「열성어찰언서발」이 바로 『숙명신한첩』의 발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심익운은 숙명공주와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1683)의 고손(高孫)이다. 그는 대대로 가보(家寶)로 내려온 『숙명신한첩』을 읽고 감회가 일어 1763년 6월 14일(庚子日)⁷⁾에 「열성어찰언서발」을 지었다.

이 논문에서는 『숙명신한첩』의 발문인 심익운의 「열성어찰언서발」을 소개하고 그 전문(全文)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숙명신한

4)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조선 왕실의 한글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편, 서울: 통천문화사.

5) 효종의 한글편지 중 제2첩이 20세기 이후에 일실되었으므로 현전하는 편지는 총66첩이다. 참고로 『숙휘신한첩』에는 총35첩의 편지가 실려 있다. 이 중 32첩의 수신자는 숙휘공주이고, 1첩의 수신자는 숙휘공주의 남편인 정제현(鄭齊賢)이다. 나머지 두 첩은 현종이 인선왕후에게 보낸 편지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조선 왕실의 한글편지는 모두 400여 첩이다. 장요한(2019), pp. 10-12 참조.

6) 김수영(2015), 「효종(孝宗)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독서와 번역」,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7) 이 사실은 발문의 끝부분에 밝혀져 있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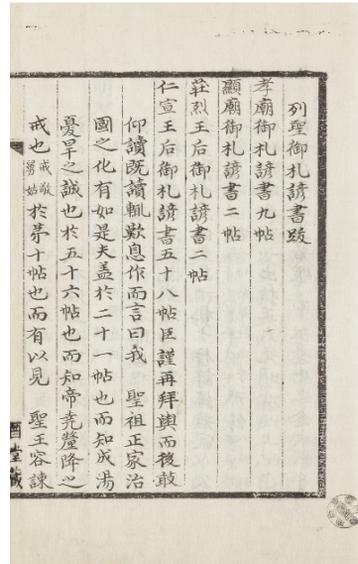
첩』의 새로운 문헌정보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⁸⁾

2. 심익운의 「열성어찰언서발」 분석

다음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백일집』 소재(所載) 「열성어찰언서발」의 사진이다.



[사진 2] <장26뒤>



[사진 1] <『百一集』 제2책 장26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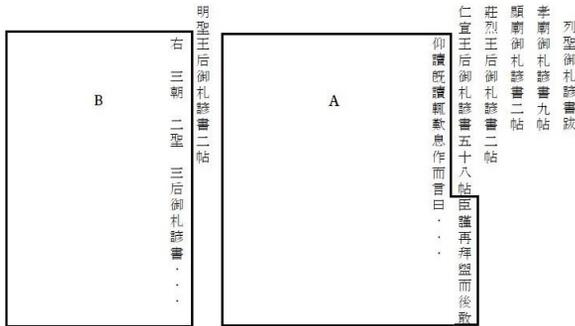
8) 『백일집』은 심익운이 21세 때인 1754년부터 34세 때인 1767년까지 지은 시문을 엮은 문집으로 ‘백일시집’(百一詩集)과 ‘백일문집’(百一文集)의 두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일집』은 규장각 소장본과 충북대학교 소장본 2종이 전하는데, 문집의 구성과 수록 작품이 동일하다(박경현(2012), 『심익운의 詩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2 참조). 본고에서는 규장각 소장본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사진 4] <장27뒤>

[사진 3] <장27앞>

이 사진에서 보듯 「열성어찰언서발」은 그 체재(體裁)가 다소 특이하다. 이를 도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열성어찰언서발」의 체재

이 도식에서 대두(擡頭)로 쓰인 부분에는 한글편지의 발신인 및 첩수(帖數)가 서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도식의 A부분에는 인선왕후가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편지만을 대상으로 한 비평(批評)이 서술되어 있다. A부분은 모두 두 칸씩 들여쓰기를 해 놓았다. 다음으로, 이 도식의 B부분에는 편지 전체를 총괄하며 발문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B부분도 모두 두 칸씩 들여쓰기를 해 놓았다. 이하 이 세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한글편지의 발신인 및 첩수(帖數)

먼저 “列聖御札諺書跋”이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 이 서첩에 수록되어 있는 한글편지의 발신인과 첩수가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효묘어찰언서 9첩
현묘어찰언서 2첩
장렬왕후어찰언서 2첩
인선왕후어찰언서 58첩
(… A부분 …)
명성왕후어찰언서2첩
(孝廟御札諺書九帖
顯廟御札諺書二帖
莊烈王后御札諺書二帖
仁宣王后御札諺書五十八帖
(… A부분 …)
明聖王后御札諺書二帖)⁹⁾

9) 심익운의 「열성어찰언서발」은 본고에서 처음 분석하는 글이므로, 이하에서 번 역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아래에 한문 원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모든 한글편지의 수신인은 숙명공주이다. 한글편지의 발신인 및 첩수를 차례대로 보면, 숙명공주의 부친인 효종이 보낸 편지가 총9첩이고, 숙명공주의 동생인 현종이 보낸 편지가 총2첩이다. 숙명공주의 조모이자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인 장렬왕후가 보낸 편지가 총2첩이고, 숙명공주의 모친인 인선왕후가 보낸 편지가 총58첩이다. 『숙명신한첩』에는 인선왕후의 편지가 가장 많으며 그 내용도 다채롭다. 이에 심익운은 ‘인선왕후어찰언서 58첩’에 대해서만 자신의 생각과 소회를 자세히 서술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 발문의 A부분을 분석하며 살피고자 한다. 끝으로 숙명공주의 올케이자 현종의 비(妃)인 명성왕후가 보낸 한글편지가 총2첩임이 밝혀져 있다.

이상 심익운의 기록과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숙명신한첩』을 대조해 보면 효종의 한글편지는 원래 9첩이 실려 있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8첩이므로 1첩이 일실되었음이 확인된다. 일실된 효종의 편지는 제2첩으로 20세기 이후에 사라졌다.¹⁰⁾ 현종의 한글편지(2첩)와 장렬왕후의 한글편지(2첩)는 일실된 것 없이 모두 현전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인선왕후의 한글편지는 원래 58첩이 실려 있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53첩이므로 심익운이 발문을 쓴 1763년 6월 14일(庚子日) 이후에 5첩이 일실되었음이 확인된다. 명성왕후의 한글편지는 원래 2첩이 실려 있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1첩이므로 1763년 6월 14일(庚子日) 이후에 1첩이 일실되었음이 확인된다.

요컨대 『숙명신한첩』에는 원래 총73첩의 한글편지가 실려 있었다. 효종의 편지 중 1첩은 20세기 이후에 일실되었다. 현종·장렬왕후의 편지는 모두 현전한다. 인선왕후의 편지 중 5첩, 명성왕후의 편지 중 1첩은 1763년 6월 14일(庚子日) 이후에 일실되었다.

10) 효종의 한글편지 중 제2첩은 김일근이 입수한 후의 어느 시점에 사라져 지금은 그 흑백 사본만 전한다. 이종덕·황문환 편(2011), pp. 60-61 참조.

2.2. 인선왕후어찰언서(仁宣王后御札諺書)에 대한 비평

다음으로 발문의 A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심익운은 『숙명신한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선왕후의 한글편지만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과 소회를 자세히 밝혔다. 이 점에서 발문의 A부분은 일종의 ‘서간비평’(書簡批評)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심익운의 비평을 총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비평의 ①단락을 보자.

① 신(臣)은 삼가 재배(再拜)하고 손을 씻은 후 감히 우러러 읽었으며, 읽고 나서 문득 탄식하고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
(臣謹再拜盥而後, 敢仰讀, 既讀輒歎息, 作而言曰:)

인용문의 ‘신’(臣)은 심익운 자신을 가리킨다. 심익운의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봉여(鵬如)이며, 호는 지산(芝山)이다. 심익운의 친부(親父)는 심일진(沈一鎭)이고, 심일진의 친부는 심중은(沈重殷)이다.¹¹⁾ 심일진은 어릴 때 심사순(沈師淳)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심사순의 조부는 신임옥사(辛壬獄事, 1721-1722년)에 연루되어 역모의 죄를 받은 심익창(沈益昌)이다.

심익운은 1759년(영조 35)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익창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청요직(淸要職)에 나아갈 수 없었다.¹²⁾ 이에 1760년(영조 36), 심일진은 영조에게 혈서로 쓴 단자(單子)를 올려 아들 심익운의 벼슬길을 위해 자신이 작고한 심사순에게서

11) 『靑松沈氏大同世譜(庚辰譜) 1』(2002), 청송심씨대동세보간행위원회, pp. 891-893 참조.

12) 『英祖實錄』 영조 35년(1759) 9월 2일자 기사가 참조된다: “吏曹判書閔百祥奏曰: ‘頃有沈翼雲郎署差下之命, 而今方有窠, 臣欲奉行, 至於清宦, 有難奉行.’ 上曰: ‘何故?’ 百祥曰: ‘益昌之孫也.’”

파양(罷養)되고 친부인 심중은의 아들로 복적(復籍)되기를 청했다.¹³⁾ 이 일은 당시 조정 안팎에서 ‘신주파양’(神主罷養)으로 불리며 패륜적 행위로 지탄받았다. 그러다가 2년 뒤인 1762년(영조 38), 영조의 윤허가 내려져 심일진은 친부인 심중은의 아들로 복적됨과 동시에 심정보(沈廷輔)의 손자로 입적되었다.¹⁴⁾ 심정보는 효종의 부마(駙馬)인 심익현(沈益顯)의 아들이다. 결과적으로 1762년(영조 38) 4월 이후, 심익운은 숙명공주와 심익현의 고손(高孫)이자 효종과 인선왕후의 후예로 인정받게 되었다.¹⁵⁾

이상에서 살핀 심익운 가문의 내력을 고려할 때, 심익운이 30세 때인 1763년(영조 39)에 이 발문을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심익운은 왕실의 후예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마침내 벼슬길에 나아가 청운(靑雲)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된 그 시기에 특별한 감격이 있어 이 발문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¹⁶⁾

다음으로 비평의 ②단락을 보자.

-
- 13) 『承政院日記』, 영조 36년(1760) 4월 20일자 기사가 참조된다: “輩良曰: ‘近來破養之弊, 尤甚, 而向來沈一鎮上言事, 情所惻然, 日後則防杜其破養之痼弊, 宜矣.’ 百祥曰: ‘一鎮之一家議論, 有瑕疵者, 何以繼後乎云? 以此言之, 則世間, 安有爲後者哉, 又安有人倫哉?’ 金相福曰: ‘翔雲以臨陂遞歸時, 內行入於恩津, 而聞洪述海啓辭, 翔雲之祖母, 因以血書, 翔雲之父一鎮, 又作血書, 其情甚可矜矣.’ 上曰: ‘人倫重, 一定之後, 不可更之也. (….) 今聞沈師淳妻, 沈一鎮之血書陳情, 聞來不覺惻傷, 因一事, 母子有此舉, 卽古所未聞也. 此後父子夫妻之間, 法外此舉, 一切嚴禁, 此等上言, 政院切勿例下, 雖或登聞呈單, 亦令該曹直爲勿施. (….)’”
- 14) 『英祖實錄』, 영조 38년(1762) 4월 21일자 기사가 참조된다: “上曰: ‘今覽沈一鎮供辭, 於一鎮之心, 豈不若是? (….) 於一鎮頃者處分嚴重曲盡, 一鎮亦隨本生父, 而奉祀於青平尉、公主, 則人倫團圓. 予旣非爲一鎮, 則一鎮之道, 但當望見寧陵, 隨父後而奉祀於貴主. 何謂隨父, 今繼後卽重股也, 重股旣奉祀, 其子何敢辭其後? 其在國體, 更無他例, 此供辭勿施, 一鎮放送, 禮斜卽爲舉行.’”
- 15) 김수영(2015), pp. 73-74 참조.
- 16) 심익운은 「열성어찰언서발」 외에도 1763년에 「七祖御書帖跋」, 「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을 지어 선대(先代)의 국왕과 왕후를 기리고 칭송했다.

② 우리 성조(聖祖)의 제가(齊家)·치국(治國)의 교화(教化)가 이와 같도다! 무릇 대개 제21첩에서 성탕(成湯)께서 여름 가뭄을 근심하신 성(誠)을 알게 된다. 제56첩에서 제요(帝堯)께서 공주를 시집보낼 때의 경계 — 시부모님을 공경하라 경계하십시오 — 를 알게 된다. 제10첩에서 성왕(聖王)께서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신 아량을 보나니, 만세의 법(法)이 될 만하다. 무릇 일개 헌신(憲臣)의 말로써 조심스럽게 사전에 경계를 함은 참으로 경외할 만한 바가 있는 듯하니 — 어찰의 대지(大指)는 대개 사헌부(司憲府)의 계론(啓論)으로서, 척리가(戚里家)에서 작폐(作弊)하는 일이 혹 이와 같음이 있음을 우려해 말한 것인데, 이 계론은 임금께서 미리 앞서 계고(戒告)하신 것이다 —, 어찌 이른바 ‘듣지 않으셔도 또한 법도에 맞으시고, 간언하지 않아도 또한 선(善)에 드셨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은 이에 일찍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개연히 당시의 성대함을 상상해 보지 않은 적이 없다.

(我聖祖，正家治國之化，有如是！夫蓋於二十一帖也，而知成湯夏旱之誠也。於五十六帖也，而知帝堯釐降之戒也。於第十帖也，而有以見聖王容諫之量，可以爲萬世法也。夫以一憲臣之言，而兢兢爲先事之戒，有若真有可畏者御札大指，蓋以憲府啓論，戚里家作弊事，應或有如此而爲言者，所論自內預先戒告也，豈非所謂‘不聞亦式，不諫亦入’者耶？臣於此，未嘗不拜手稽首，三復流涕，慨然想見當時之盛也。)

② 단락에서 심익운은 인선왕후가 쓴 한글편지 58첩 가운데 국왕의 교화(教化)가 언급되어 있는 편지를 거론한다. 여기서 특정한 편지 셋이 언급되니 제21첩, 제56첩, 제10첩이다.¹⁷⁾

이제부터 심익운의 비평과 대상 편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제21첩의 편지에 대해 “성탕(成湯)께서 여름 가뭄을 근심하

17) 앞의 두 경우에는 원문에 ‘第’자가 없고, 세 번째 경우에만 ‘第’자가 있다. 그렇기는 하나 필자가 현재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인선왕후의 한글편지 53첩을 모두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번째 편지’의 의미로 쓴 것으로 판단된다.

신 성(誠)¹⁸⁾을 알게 된다”라고 평했다. 인선왕후 편지의 제21첩은 다음과 같다.

글월 보고 무사하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 반기노라. 아기네는 오늘 들어오니 심심 중 소일(消日)할까 든든 기뻐하노라. 부마(駙馬: 심익현 — 인용자)는 몸이나 무사히 있는가 하며 졸곡(卒哭)이 지났으니 된밥이나 시로이(든든하게 — 인용자) 먹는가 몰라 답답하여 하노라.

요사이는 한재(旱災)로 갑갑히 민망히 지내노라 하니 냇이 없는 듯하여 하노라. 큰전에서 피정전(避正殿)하여 계셔 마음을 몰라 하시느니라.¹⁹⁾

길지 않은 편지이지만 딸 숙명공주와 사위 심익현에 대한 인선왕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걱정이 잘 드러나 있다. “부마(駙馬: 심익현 — 인용자)는 몸이나 무사히 있는가 하며 졸곡(卒哭)이 지났으니” 운운한 구절에서 이 편지를 쓴 시기가 드러난다. 심익현의 부친인 영의정 심지원(沈之源, 1593-1662)은 1662년 1월 28일에 졸하였다. ‘졸곡’(卒哭)은 그로부터 석 달 후이므로 인선왕후의 이 편지는 1662년(현종 3) 5월 무렵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18) ‘성탕’(成湯)은 고대 중국의 은(殷)나라를 창건한 임금으로, 7년이나 가뭄이 들자 상림(桑林)의 사(社)에 나아가 친히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19) 원문은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pp. 126-127. “글월 보고 무스하니 깃거히며 보는 듯 든” 반기노라. 아기네는 오늘 드러오니 심” 둥 쇼일홀가 든” 깃버히 노라. | 부마는 몸이나 무스히 있는가 히며 졸곡이 디나시니 된밥이나 시로이 먹는가 몰라 답” 히여 히노라. 요스이는 한지로 굽” 민망이 디내노라 히니 녀시 업슨 듯히여 히노라. 큰던의셔 피정던히여 겨셔 안홀 몰라 히시느니라.” 이하 『숙명신한첩』에 수록된 인선왕후 편지의 인용문은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pp. 86-191의 판독문을 참조하되 필자가 되도록 원문의 어투를 살리고 한자를 임의로 병기해 일부 수정했다.

20)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p. 126 참조.

심익운이 특별히 유의해 읽은 대목은 인용문에서 진하게 표시한 “큰전에서 피정전(避正殿)하여 계서 마음을 몰라 하시느니라”이다. ‘큰전’은 ‘大殿’을 말하니, 여기서는 국왕인 ‘현종’을 가리킨다. ‘피정전’(避正殿)은 ‘국왕이 정전(正殿)을 피한다’는 뜻이다. 당시의 정전은 창덕궁(昌德宮)의 인정전(仁政殿)이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군주는 국가에 천재지변이 생기면 스스로 정전을 피하고 신하들에게 직언(直言)을 구했으며,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審理)했다.²¹⁾ 현종 또한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 앞에서 국왕으로서 겸허한 태도를 취했다. 「현종대왕행장」(顯宗大王行狀)에 의거하면, 현종은 편지에 언급된 1662년(현종 3) 외에 1673년(현종 14)에도 가뭄의 피해가 있자 정전을 피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했으며,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했다.²²⁾ 이처럼 심익운은 인선왕후의 편지 제21첩에서 여름 가뭄을 근심해 스스로 정전을 피했던 현종의 정성스러움을 읽어내고, 이를 성탕(成湯)의 고사에 견주어 평했다.

다음으로, 제56첩의 편지에 대해 “제요(帝堯)께서 공주를 시집보낼 때의 경계 — 시부모됨을 공경하라 경계하심 — 를 알게 된다”라고 평했다. 그 원문 중의 “帝堯釐降之戒”는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전거를 둔다. 고대 중국의 요 임금의 평민이던 순(舜)의 명성을 듣고 자신의 두 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그에게 보내 혼인하게 한 고사에서 유래하는 말이다.²³⁾ 조선 왕실의 숙명공주가 사대부 가문의 자제인 심익현과 혼인한 일은 ‘하가’(下嫁)에 해당되므로 ‘釐降’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²⁴⁾ 현전하는 『숙명신한첩』에는 인선왕후 편지의 제56첩

21) 『五禮通考』 권23 ‘吉禮’. “以旱, 下詔責躬, 求直言, 避正殿, 減膳, 審理冤獄.”

22) 남구만(南九萬), 『藥泉集』 권14 『應製錄』 「顯宗大王行狀」. “以旱災, 理冤獄, 避殿, 減膳, 禁酒.”

23) 『書經』 「堯典」. “두 딸을 규예(媯汭)로 내려 보내, 우(虞)의 아내가 되게 했다”(釐降二女于媯汭, 嬪于虞).

이 없다. 하지만 심익운이 쌍행(雙行)의 세자(細字)로 쓴 “시부모님을 공경하라 경계하심”(戒敬舅姑)이라는 협주(夾註)로 보아 이 편지에는 숙명공주의 부친인 효종의 말씀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제10첩의 편지에 대해 “성왕(聖王)께서 간언(諫言)을 받 아들이신 아량을 보나니, 만세의 법(法)이 될 만하다. 무릇 일개 헌신(憲臣)의 말로써 조심스럽게 사전에 경계를 함은 참으로 경외할 만한 바가 있는 듯하니”라고 평했다. 그런데 현전하는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인선왕후 편지의 제10첩은 간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국왕이 간언을 수용한 일이 언급된 편지는,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인선왕후의 편지 가운데 제8첩이 유일하다. 다음이 그것이다.

글월 보고 친히 보는 듯 든든 받기나 귀는 한가지로 앓는다 하니 어떤 것이 그리 지리(支離)하고. 분별(分別)이 가이 없어 하노라.

웃전께서 어제 헌부(憲府: 사헌부 — 인용자)에서 새로 소계(疏啓)하여 제궁가(諸宮家)에서 금란(禁亂) 일로 작폐(作弊)하는 일이 심하니 가끔 적발하여 가장(家長)을 죄주게 하였으니 행여 걸려들 일이 있을까 하여 아침에 소임들을 불러다가 전교(典敎)로 이르고 이 사연을 주인들더러 이르고 조심하라 하였으니 아마도 조심들 하라 하신다.²⁵⁾

24) 왕명에 따라 이민구(李敏求)가 숙명공주와 심익현의 신혼집 상량문에 쓴 「清平公主新第上樑文」(『東州集』 권5)에도 『書經』 「堯典」의 표현이 보여 참조된다. “계수나무 침실에 상서로움 열리니 / 선녀가 내려와 규예(媯汭)에 시집은 듯하네 / 아름다운 두 사람 혼인하니 / 온갖 복이 가득 모이리”(桂闥披祥, 降仙嬪於媯汭. 援兩美而作合, 膺百福之所咸).

25) 이종덕·황문환 편역(2011), pp. 100-101. “글월 보고 친히 보는 듯 든든 받기나 귀는 한가지로 앓는다 하니 엇딘 거시 그리 지리하고 분별이 가이업서 하노라. 우흐로겨오샤 어제 헌부의셔 새로 소계하여 제궁가의셔 금란 일로 작폐하는 이리 희약하니 가끔 적발하여 가당을 죄주게 하여시니 힘혀 거들릴 이리 이실 가 하야 아적의 소임들호 불러다가 전교로 니르고 이 스연을 항것들드려 니르고 조심하라 하여시니 아마도 조심들 하라 하오신다.”

인용문 중 진하게 표시한 “웃전께서 어제 헌부(憲府: 사헌부 — 인용자)에서 새로 소계(疏啓)하여 제궁가(諸宮家)에서 금란(禁亂) 일로 작폐(作弊)하는 일이 심하니 가끔 적발하여 가장(家長)을 죄주게 하였으니”라는 대목에서, 국왕이 사헌부의 간언이 담긴 소계(疏啓)를 경청해 수용한 일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금란(禁亂) 일로 작폐(作弊)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여러 궁가(宮家)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추정된다.²⁶⁾ 심익운이 협주에 쓴 “어찰의 대지(大指)는 대개 사헌부(司憲府)의 계론(啓論)으로서, 척리가(戚里家)에서 작폐(作弊)하는 일이 혹시 이와 같음이 있음을 우려해 말한 것인데, 이 계론은 임금께서 미리 앞서 계고(戒告)하신 것이다”라는 말과 비교해 보면, 위의 편지 내용과 꼭 맞는다.

그렇다면 현전하는 『숙명신한첩』에서 인선왕후 편지의 차서가 일부 착종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필자의 고찰 결과, 심익운이 발문에서 특칭한 인선왕후의 편지 중 제6첩, 제21첩, 제24첩, 제28첩, 제37첩의 차서는 현전하는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인선왕후 편지의 차서와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점에서 제10첩만 차서가 맞지 않는 것은 심익운이 인선왕후 편지의 제8첩을 제10첩으로 오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며, 『숙명신한첩』의 차서는 성첩(成帖)된 이래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협주의 뒤에 이어지는 “어찌 이른바 ‘듣지 않으셔도 또한 법도에 맞으시고, 간언하지 않아도 또한 선(善)에 드셨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평 또한 제10첩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시경』 대아(大雅) 「사제」(思齊)에서 중국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덕을 칭송한 구절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²⁷⁾

26) 효종대 및 현종대에 궁가(宮家)에서 백성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게 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작폐(作弊)가 횡행하여 이에 대한 사헌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혹 이러한 일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이상에서 분석했듯 심익운은 ②단락에서 인선왕후의 편지 가운데 국왕인 효종과 현종의 교화가 드러나 있는 총3첩의 편지를 특정해 평했다. 이어 “신은 이에 일찍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개연히 당시의 성대함을 상상해 보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한다. 이 구절에서 왕후의 편지를 읽고 거기에 담겨 있는 국왕의 교화를 칭송하며 삼가고 공경하는 심익운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비평의 ③단락을 보자.

③ 우리 성모(聖母)는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자애(慈愛)로우시어 일찰십행(一札十行)이 매우 자상하시니, 마치 일반 가정의 부모 자식과 같으셨다. 무릇 가르치고 일깨우신 것 — 제6첩과 제57첩에서 부마도위(駙馬都尉)가 진학(進學)하기를 권면하셨음 —, 경계하고 신칙하신 것 — 제58첩에서 궁노(宮奴)가 범명을 범하지 못하게 신칙하셨음 — 이 하나도 정대(正大)함과 광명(光明)함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으니, 위로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의 성스러움에 짝할 수 있으시며, 심지어 성조(聖祖)의 우근(憂勤)한 마음을 체득하시어 일심(一心)에 계구(戒懼)함과 같은 것은 애연(藹然)하시어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신다 — 제24첩과 제28첩에서 가뭄을 근심하시고, 제37첩에서 재이(災異)를 만나 피전(避殿)하셨음 —. 아름답도다! 성대하도다!

(惟我聖母至仁至慈，一札十行諄諄，若家人父子然。凡所以訓誨第六第五十七帖勸都尉進學戒飭第五十八帖飭宮奴毋令犯禁者，無不一出於正大光明，有以上配乎任姒之聖。而至若體聖祖憂勤之念，戒懼乎一心者，藹然辭旨之感人也第二十四第二十八帖憫旱，第三十七帖遇災避殿。猗歟！盛矣！)

인용문의 “우리 성모(聖母)”는 인선왕후를 가리킨다. 심익운은 ③단락에서 먼저 편지를 통해 드러나는 인선왕후의 덕성(德性)을 칭송한

27) 『詩經』 大雅 「思齊」. “不聞亦式，不諫亦入.”

다. 그는 인선왕후가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자애(慈愛)로우시어” 마치 일반 가정의 부모가 지닐 법한 자상함이 “일찰십행”(一札十行)²⁸⁾ 마다 드러나 있다고 평했다. 심익운의 이 평은 적실하다고 생각된다. 인선왕후가 쓴 여러 편지에서 숙명공주와 손주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가족과 친지들을 두루 살피는 자상함이 엿보인다.²⁹⁾ 만일 발신인을 모른 채 읽는다면 왕후의 편지가 아닌 보통 어머니의 편지로 간주될 만한 편지가 적지 않다.

그렇기는 하나 심익운이 ③단락에서 특별히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편지는, 공통적으로 ‘성모’(聖母)로서의 인선왕후의 훌륭함을 보여주는 편지들이다. 먼저 인선왕후 편지의 제6첩과 제57첩이 같이 거론되는데, 제57첩은 일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으므로 제6첩을 보기로 한다.

웃전계서 정승(政丞: 심지원 — 인용자)이 오래지 않아서 나가 시계 하였으니 부마(駙馬)를 그저 저리 매인 데 없이 두고 가시면 글도 못 배우고 어이없을 것이니 남 아닌 사이고 하니 부디 권 진선(權進善)께 말기고 가시되 진선께도 소청(訴請)을 단단히 하시 고 부마더러도 가장 단단히 당부하고 가옵소서 하신다 하여 내 말로 적어라 하신다.³⁰⁾

28) ‘일찰십행’(一札十行)은 본래 ‘임금의 친필 조서(詔書)나 어찰(御札)’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중국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가 조칙을 내릴 때 ‘한 장에 열 줄씩’[一札十行] 친필로 쓴 고사에서 유래한다. 여기서는 ‘인선왕후의 친필 편지 한 첩’을 의미하는 말로 썼다.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인선왕후의 한글 편지들은 대개 열 줄 내외의 분량이나, 꼭 열 줄은 아니다.

29)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인선왕후 한글편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최근 논의로는 노경자(2018), 「17세기 한글편지를 통해 본 왕실 여성들의 삶과 문화 — 『숙명신한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0,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30) 이종덕·황문환 편독(2011), pp. 96-97. “우흐로겨오샤 정승이 오라디 아녀서 나가시고 흐여시니 부마를 그저 더리 밍인 디 업시 두고 가시면 글도 못빅호고 어히업술 거시니 늑 아닌 스이오 하니 브디 권 진선의 맛디고 가시되 진선의쇼 청을 든 〃 이 흐시고 부마더러도 〃장 든 〃 이 당부호고 가옵쇼셔 흐오신다

이 편지는 심익현의 부친 심지원이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나라 북경으로 사행을 떠난 1657년(효종 8)에 작성되었다. 편지에 언급된 “권 진선”을 단서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³¹⁾ ‘권 진선’은 1656년 1월 16일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진선(進善)에 임명된 권시(權諤)를 가리킨다.³²⁾ 심지원은 1657년(효종 8) 10월 28일에 사행단의 정사(正使)로서 효종을 알현하고 북경으로 떠났으므로,³³⁾ 이 편지가 작성된 때는 그로부터 얼마 전의 시기로 추정된다. 당시 심익현의 나이는 17세였다.

인선왕후는 사위인 심익현이 한창 배움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부친의 출국으로 인해 혹 공부를 소홀히 할까 염려한 듯하다. 이에 효종에게 청해 진선인 권시에게 부마의 지도를 각별히 맡기고, 심익현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심익운은 인선왕후의 이 편지 및 제57첩에 대해 “부마도위(駙馬都尉)가 진학(進學)하기를 권면하셨음”이라는 협주를 붙였다. 이로 보건대 현재 전하지 않는 제57첩의 주요 내용도 제6첩과 비슷하리라 추정된다.

다음으로 거론된 편지는 제58첩인데 이는 일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심익운이 쓴 “제58첩에서 궁노(宮奴)가 법령을 범하지 못하게 신칙하셨음”이라는 협주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는 현전하는 『숙명신한첩』에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분석했듯 심익운은 인선왕후의 세 편지 — 제6첩, 제57첩, 제58첩 — 를 대상으로 “무릇 가르치고 일깨우신 것, 경계하고 신칙하신 것이 하나도 정대(正大)함과 광명(光明)함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으니, 위로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의 성스러움에 짝할 수 있으시며”

ᄃᆞᆫ 내 말로 덕어라 ᄃᆞᆫ오신다.”

31)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p. 96.

32) 『孝宗實錄』 효종 7년(1656) 1월 16일자 기사 참조.

33) 『孝宗實錄』 효종 8년(1657) 10월 28일자 기사 참조.

라고 평했다. ‘태임’(太任)은 중국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모친이고, ‘태사’(太姒)는 문왕의 비(妃)이자 무왕(武王)의 모친이다. 두 사람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훌륭한 왕후의 전범(典範)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앞에서 살핀 ②단락에서 효종과 현종을 제요(帝堯)와 성탕(成湯)에 견주어 칭송했듯, 심익운은 ③단락에서 인선왕후를 태임과 태사에 견주어 칭송했다.

이어서 심익운은 인선왕후가 “심지어 성조(聖祖)의 우근(憂勤)한 마음을 체득하시어 일심(一心)에 계구(戒懼)함과 같은 것은 애연(藹然)하시어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신다”라고 평하고, 이 구절에 “제24첩과 제28첩에서 가뭄을 근심하시고, 제37첩에서 재이(災異)를 만나 피전(避殿)하셨음”이라는 협주를 붙였다. 이 비평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주에 거론된 편지를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제24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글월 보고 무양(無恙)하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하여 하노라.
(…중략…)

요사이 이리 가뭄이 하 근심을 하시니 뵈옵기 갑갑하여 하노라. 오늘 기우제(祈雨祭)에 어제 저물도록 나가 계서 재계(齋戒)하시고 밤도 낮 삼으시고 삼경(三更)에 나오셔 파루(罷漏) 후에야 집에 들어오셨다. 정성을 들이시더니만은 하마 올 듯하고 아니 오니 아마도 갑갑하여 하노라.³⁴⁾

이 편지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국왕³⁵⁾이 크게 근심하여

34)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pp. 132-133. “글월 보고 무양하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 하여 하노라. (…) 요사이 이리 가뭄이 하 근심을 하시니 뵈옵기 갑갑하여 하노라. 오늘 기우제에 어제 저물도록 나가 계서 재계하시고 밤도 낮 삼으시고 삼경의 나오셔 파루 후의야 집의 드오셨다. 정성을 드리오시더니만은 하마 올 듯하고 아니 오니 아마도 갑갑하여 하노라.”

35) 당시의 국왕이 효종이었는지 현종이었는지는 미상이다. 인선왕후의 편지 제24

재계(齋戒)하고 밤낮 없이 정성을 기울인 일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심익운이 편지에서 특별히 눈여겨 읽은 대목은, 인선왕후가 왕후로서 국왕의 곁에서 가뭇을 함께 근심한 태도인 듯하다. 이에 “[인선왕후가 — 인용자] 심지어 성조(聖祖)의 우근(憂勤)한 마음을 체득하시어 일심(一心)에 계구(戒懼)함과 같은 것”이 편지에서 드러난다고 평했다. 이어서 같이 거론된 제28첩을 보자.

 글월 보고 무사(無事)하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하여 하노라.
 글피면 볼까 기다리고 있노라. (...중략...)
 비는 그리 바라다가 기특히 [기우제를 — 인용자] 시작을 하여
 두시고 [마음을 — 인용자] 이리 줄이시니 행여 저번 같을까 용심
 (用心)을 하고 있노라.³⁶⁾

인용문의 진하게 표시한 부분 중 “기특히 [기우제를 — 인용자] 시작을 하여 두시고 [마음을 — 인용자] 이리 줄이시니”는 국왕³⁷⁾을 가리켜 한 말이고, “행여 저번 같을까 용심(用心)을 하고 있노라”는 인선왕후 자신이 그렇다는 말이다. 이처럼 제28첩에서도 국왕의 우근한 마음을 체득한 인선왕후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심익운은 협주에서 제24첩과 제28첩을 같이 거론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⁸⁾

첩은 1652년(효종 3)~1674년(현종 15)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덕 · 황문환 판독(2011), p. 132 참조.

- 36) 이종덕 · 황문환 판독(2011), pp. 140-141. “글월 보고 무스흔니 깃거흐며 보는 듯 든” ᄒ여 ᄒ노라. 글피면 볼까 기다리고 있노라. (...) 비는 그리 바라다가 기특히 시작을 ᄒ여 두시고 이리 조로시니 ᄒ헝혀 저번 ᄒ툴까 용심을 ᄒ고 있노라.”
- 37) 당시의 국왕이 효종이었는지 현종이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인선왕후의 편지 제28첩은 1654년(효종 5)~1674년(현종 15)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덕 · 황문환 판독(2011), p. 140 참조.
- 38) 현전하는 『숙명신한첩』의 인선왕후 편지 중 ‘가뭇에 대한 근심’이 주요 내용으로 언급된 편지는 총3첩으로 제21첩, 제24첩, 제28첩이 그것이다. 이 세 편지는 본고에서 모두 검토하였다.

그 뒤에 거론된 제37첩에서는 다음 대목이 주목된다. 이 편지는 효종 재위기인 1652~1658년 사이에 작성되었다.³⁹⁾

우리는 재이(災異)로 여연당⁴⁰⁾에 피정전(避正殿)하여 계시다.
요사이는 근심으로 지내니 침식(寢食)이 편안치 않아 어둑히 지내노라.⁴¹⁾

인용문의 ‘재이’(災異)가 어떤 자연재해를 가리키는지는 미상이다. 혹 가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심익운 역시 이 점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협주에서 제24첩 및 제28첩과 별도로 “제37첩에서 재이(災異)을 만나 피전(避殿)하셨음”이라고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분석했듯 심익운은 세 편지 — 제24첩, 제28첩, 제37첩 — 를 들어 왕후로서 국왕의 우근한 마음을 체득한 인선왕후의 훌륭함을 칭송했다. 이에 ③단락을 “아름답도다! 성대하도다!”라는 감탄의 말로 매듭짓는다.

끝으로 비평의 ④단락을 보자.

④ 무왕(武王)은 “나에게는 난신(亂臣) 열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공자는 “당우(唐虞)의 즈음이 이 때(주나라 때 — 인용자)보다 성대했나니 부인이 포함되었다”라고 했다. 송유(宋儒)는 “부인은 읍강(邑姜)이다”라고 말했다. 신(臣)이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 성조(聖祖)께서 성덕(盛德)이 지선(至善)하시어 백성들이 지금도 잊지 못함은, 어찌 ‘현인(賢人)을 구해 스스로 돕는다’는 말을 본받고

39)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p. 158 참조.

40) ‘여연당’이 궁궐의 어느 전각을 가리키는지는 미상이다.

41) 이종덕·황문환 판독(2011), pp. 158-159. “(...) 우리는 직이로 여연당의 피정전 하여 겨오시다. 요사이는 근심으로 디내니 침식이 편안티 아녀 어둑이 디내노라 (...)”

가법(家法)의 올바름을 좇은 데 도움 받음이 있지 않으셨겠는가?
성모의 내치(內治)가 많으셨던 것이다.

(武王曰: “予有亂臣十人.” 孔子稱: “唐虞之際, 於斯爲盛, 有嬪人焉.”
宋儒云: “嬪人蓋邑姜也.” 臣竊以爲, 我聖祖盛德至善, 民至今不能忘
者, 何莫非‘求賢自輔’之效而若其家法之正有資乎? 聖母內治者多矣.)

④단락은 앞의 ③단락에서 개별적으로 평한 내용을 종합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차례로 무왕(武王), 공자(孔子), 송유(宋儒)의 말이 언급되는데 모두 군주의 치세(治世)에 기여한 중국 고대의 왕후에 대한 말이다. 먼저 무왕의 “나에게는 난신(亂臣)⁴²⁾ 열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서경』(書經) 「태서」(泰誓)에 보인다. 그 석문(釋文)을 보면 9명의 신하와 더불어 문왕의 비(妃)이자 무왕의 모친인 ‘태사’(太姒)가 인재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된다. 다음으로, 공자의 “당우(唐虞)의 즈음이 이 때(주나라 때 — 인용자)보다 성대했나니 부인이 포함되었다”라는 말은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보인다. 인재 가운데 부인이 포함되었던 무왕 때의 일을 공자가 다시 언급한 것이다.⁴³⁾ 끝으로, “부인은 읍강(邑姜)이다”라는 말은 중국 송대(宋代) 유학자 유창(劉敞)의 주해(註解)이다. 유창은 무왕과 공자가 언급한 부인이 ‘태사’(太姒)가 아니라 무왕의 비(妃)인 ‘읍강’(邑姜)임을 고증했다. 이처럼 ④단락에서 심익운이 여러 전고(典故)를 인용한 것은 인선왕후를 칭송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 단락 끝의 “성모의 내치(內治)가 많으셨던 것이다”라는 구절이 심익운이 말하고자 한 주지(主旨)이다. 심익운은 인선왕후의 편지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고, 아울러 효종과 현종의 제가(齊家)·치국(治國)에 인선왕후의 기여가 적지 않았음을 간취한 듯하다. 이 때문에

42) ‘난신’(亂臣)은 군주의 다스림을 보좌하는 신하를 뜻한다.

43) 다만 『論語』 「泰伯」의 해당 구절은 본래 군주의 치세(治世)를 도울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일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이다. “才難不其然乎? 唐虞之際, 於斯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국왕과 왕후의 한글편지 중 인선왕후의 편지에 대해서만 특별히 비평을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2.3. 발문의 마무리

이제 발문을 마무리하는 B부분을 보자.

오른쪽 3조(三朝) 2성(二聖)·3후(三后)의 어찰언서(御札諺書)는 1권 총73첩으로, 신의 고조모(高祖母)이신 숙명공주에게 하사(下賜)하신 것이다. 매 첩의 앞머리에는 언서(諺書) 표기(標記)가 있으니 공주께서 손수 쓰신 것이다. 장렬왕후어찰첩의 표기는 ‘대왕대비어서’이고, 명성왕후어찰첩의 표기는 ‘왕대비어서’이다.

이 권이 만들어진 것은 숙종조(肅宗朝)인 듯하다. 숙종 때의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은 명성성모(明聖聖母)가 하사하신 언서어찰이 여염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 조정에 봉진(封進)코자 했다. 신은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니, 이를 어찌 열조(列朝)의 어서(御書)와 나란히 간직할 수 있겠는가?

금상 39년 계미(癸未) 여름 6월 경자일(庚子日). 신(臣) [익운(翼雲)]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경히 쓰다.

(右三朝二聖三后御札諺書，一卷凡七十三帖，所賜臣高祖母淑明公主者。每帖首有諺書標記，公主所手書也。莊烈王后御札帖標記曰‘大王大妃御書’，明聖王后御札帖標記曰‘王大妃御書’。是卷之成似在肅宗朝矣。肅宗時先正臣宋時烈，以明聖聖母所賜諺書御札爲不宜留在閭閻，擬以封進于朝。臣以爲與此異矣，茲庸與列朝御書竝藏焉？上之三十九年歲次癸未夏六月庚子。臣[翼雲]⁴⁴⁾拜手稽首敬識。)

발문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숙명신한첩』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정

44) 원문을 보면 ‘臣’자 뒤의 두 칸이 공백으로 되어 있다. 이 공백에 ‘翼雲’이라는 두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필사할 때 뺐다.

보가 확인된다. 인용문의 “오른쪽 3조(三朝) 2성(二聖)·3후(三后)⁴⁵⁾의 어찰언서(御札諺書)는 1권 총73첩으로, 신의 고조모(高祖母)이신 숙명공주에게 하사(下賜)하신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숙명신한첩』이 당시 1권의 책으로 존재했으며, 서첩에 수록된 모든 편지의 수신인이 숙명공주임이 확인된다. 또한 “매 첩의 앞머리에는 언서(諺書) 표기(標記)가 있으니 공주께서 손수 쓰신 것이다. 장렬왕후어찰첩의 표기는 ‘대왕대비어서’이고, 명성왕후어찰첩의 표기는 ‘왕대비어서’이다”라는 구절에서, 숙명공주가 발신인별로 편지를 분류하여 손수 표기를 했음이 확인된다. 현전하는 『숙명신한첩』을 보면, 매 장 우측면 상단의 여백에 세로로 작게 쓴 한글 표기가 보인다. 효종의 편지에는 “효종대왕어서”라는 표기가 보이고, 현종의 편지에는 “현종대왕어서”라는 표기가 보인다. 장렬왕후의 편지에는 “대왕대비어서”라는 표기가 보이고, 인선왕후의 편지에는 “인선왕후어서”라는 표기가 보인다.⁴⁶⁾ 한편 심익운의 발문에 의거할 때 “왕대비어서”라는 표기는 현재 일실된 명성왕후의 편지 제1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명성왕후의 편지 제2첩에는 그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⁴⁷⁾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숙명신한첩』은 숙명공주가 주관해 성첩(成帖)하여 소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45) ‘3조’(三朝)는 인조조·효종조·현종조를, ‘2성’(二聖)은 효종·현종을, ‘3후’(三后)는 장렬왕후·인선왕후·명성왕후를 가리킨다.

46) 『숙명신한첩』의 원본 사진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 웹페이지, <http://archive.aks.ac.kr> 참조.

47)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편지들은 분량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어떤 편지는 한 첩이 1면을 차지하고 어떤 편지는 한 첩이 2면을 차지한다. 현전하는 명성왕후의 편지 제2첩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그 여백을 온전히 다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나 서첩의 왼쪽 면에 위치하므로 원래 숙명공주의 표기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8) 참고로 숙명공주는 이 첩 외에도 여러 가지 왕실의 어서(御書)를 소장하였으며 이를 후손에 전하였다(심익운, 『百一集』 「七朝御書帖跋」 참조). 또한 숙명공주

다음으로, 심익운은 『숙명신한첩』의 성첩 시기를 숙종조(肅宗朝, 1675-1720)로 추정했는데, 숙명공주의 몰년(1699년, 숙종 25)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어 숙종 때 송시열(宋時烈)이 명성왕후가 보낸 한글편지를 받고, 이를 효종에게 받은 어서(御書)와 함께 조정에 올려 보내고자 한 일이 언급되어 있다.⁴⁹⁾ 여기서 “신은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니, 이를 어찌 열조(列朝)의 어서(御書)와 나란히 간직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심익운이 명성왕후의 한글편지를 귀하게 여기기는 하되 국왕이 한문으로 쓴 어서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심익운은 “금상 39년 계미(癸未) 여름 6월 경자일(庚子日)”, 즉 영조 39년인 1763년 6월 14일에 이 발문을 썼음을 밝혀 두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심익운은 발문을 쓴 그 무렵에 머잖아 청운(靑雲)의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으로 보이며, 2년 뒤인 1765년(영조 41)에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심익운의 등용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우세해, 심익운은 1770년(영조 46) 무렵 벼슬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그 후 1775년(영조 51), 심

는 효종에게 특별히 청해 효종이 번역하고 인선왕후가 받아쓴 『삼국지연의』를 하사받아 소장하다가 후손에 전하였다(심익운, 『百一集』 「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 김수영(2015), pp. 73-77 참조).

49) 명성왕후는 1680년(숙종 6) 12월 22일에 김석연(金錫衍)을 통해 송시열에게 조정에 돌아오라는 내용의 한글편지 1첩을 써서 보냈다. 1689년(숙종 15), 효종의 어서(御書)를 조정에 바치라는 어명이 내려지자 송시열은 「進孝廟手札明聖諺札疏」(『宋子大舍』 권20)를 짓고 효종의 어서와 명성왕후의 한글편지를 함께 바치고자 했다. 그러나 송시열이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된 데다 편지 전달을 맡긴 손자 송주석(宋疇錫)이 요절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그 후 송시열이 사후 복권된 1694년(숙종 20)에 그 아들 송기태(宋基泰)가 효종의 어서 4첩과 명성왕후의 한글편지 1첩을 숙종에게 바쳤다. 『肅宗實錄』 숙종 20년(1694), 윤5월 11일자 기사; 이남희(2017), 「조선 후기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인간의 특성과 의미」,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pp. 115-117 참조.

50) 1770년 이후에 지은 작품에서 심익운은 자신을 ‘백일거사’(百一居士), ‘백일산

익운의 형 심상운(沈翔雲, 1732-1776)이 당시 왕세손(王世孫)인 정조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⁵¹⁾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상운·심익운 형제는 왕실의 후예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庶民)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776년(정조 즉위년), 심상운은 처형당했다. 심익운은 유배되었다가 1783년(정조 7) 무렵 제주도에서 생을 마쳤다.⁵²⁾ 이 점에서 「열성어찰언서발」을 쓴 1763년 무렵은 심익운이 신산한 삶의 도정에서 얼마간 희망을 품었던 특별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3. 새로 밝혀낸 『숙명신한첩』의 문헌정보

본고의 제2장에서는 심익운의 「열성어찰언서발」 전문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과정에서 『숙명신한첩』의 문헌정보 여러 가지가 새로 밝혀졌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명신한첩』은 숙종조(肅宗朝)에 1권의 서첩으로 만들어졌다. 서첩을 만들어 소장한 이는 숙명공주로 추정된다. 『숙명신한첩』은 심익운이 발문을 쓴 1763년(영조 39) 6월 14일(庚子日) 당시에 1권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심익운의 집안에 가보(家寶)로 전해지고 있었다.

둘째, 『숙명신한첩』의 원제(原題)는 ‘열성어찰언서’(列聖御札諺書)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 『숙명신한첩』은 표지 및 제목이 없는 채 발견되어 지금까지 그 원제를 알 수 없었다. 이제 심익운의 발문 제목

인’(百一散人) 등으로 칭했다. 변원균(2016), 「芝山 沈翼雲의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참조.

51) 『英祖實錄』 영조 51년(1775) 12월 21일자 기사 참조.

52) 『正祖實錄』, 정조 6년(1782) 1월 14일자 기사; 박경현(2012), pp. 11-12; 변원균(2016), p. 13; 김동준(2017), 『겨울을 향하는 풀벌레의 울음처럼 — 지산 심익운의 백일시집』, 파주: 태학사, pp. 24-31 참조.

인 ‘열성어찰언서발’에 의거해 이 서첩의 원제를 ‘열성어찰언서’로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서첩 제작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서첩의 제목은 성첩한 사람이 짓는 일이 자연스럽다. 필자는 숙명공주가 성첩을 주관했을 것으로 추정하므로 ‘열성어찰언서’라는 서첩의 제목 역시 숙명공주가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셋째,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편지의 차서(次序)는 서첩이 장정(裝幀)된 이래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숙명신한첩』에는 원래 총73첩의 한글편지가 실려 있었다. 효종의 편지는 원래 총9첩이 실려 있었는데, 20세기 이후 제2첩이 일실되었다. 다만 사본을 통해 제2첩의 내용을 살필 수는 있다. 현종의 편지(2첩)와 장렬왕후의 편지(2첩)는 모두 현전한다. 인선왕후의 편지는 원래 총58첩이 실려 있었는데, 1763년 6월 14일(庚子日) 이후 5첩이 일실되었다. 인선왕후의 편지 중 제54첩, 제55첩, 제56첩, 제57첩, 제58첩이 일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성왕후의 편지는 원래 총2첩이 실려 있었는데, 1763년 6월 14일(庚子日) 이후 제1첩이 일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숙명공주는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편지를 발신인별로 분류한 후 손수 한글 표기를 했다. 숙명공주는 서첩의 매 장 우측면의 상단 여백에 작은 글씨로 각각 “효종대왕어셔”, “현종대왕어셔”, “대왕대비어셔”, “인선왕후어셔”, “왕대비어셔”라고 썼다. 현전하는 명성왕후 편지의 제2첩에는 “왕대비어셔”라는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심익운의 발문에 의거할 때 일실된 명성왕후 편지의 제1첩에 “왕대비어셔”라는 표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맺음말

『숙명신한첩』은 보물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서발문(序跋文)이 알려지지 않아 문헌에 대한 고찰에 난점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18세기 문인 심익운이 쓴 「열성어찰언서발」이 『숙명신한첩』의 발문임을 밝히고, 그 전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숙명신한첩』의 주요 문헌정보가 새로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열성어찰언서발」 중 ‘인선왕후어찰언서’에 대한 심익운의 비평을 자세하게 고찰했다. 이를 통해 「열성어찰언서발」이 일종의 ‘서간비평’(書簡批評)의 성격을 지님을 논했다. 조선후기 문인들이 발문(跋文)에서 소설 비평을 시도한 사례들은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발문을 통해 서간을 비평한 사례는 그리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심익운의 「열성어찰언서발」은 새로운 주목을 요한다.

참고문헌

【자 료】

- 심익운(沈翼雲), 『百一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이종덕·황문환 관독(2011), 『조선 왕실의 한글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 박물관 편, 서울: 통천문화사.
- 남구만(南九萬), 『藥泉集』 권14 『應製錄』 「顯宗大王行狀」, 韓國文集叢刊 132, 한국고전번역원.
이민구(李敏求), 『東州集』 권5 「淸平公主新第上樑文」, 韓國文集叢刊 94, 한국고전번역원.
『靑松沈氏大同世譜(庚辰譜) 1』(2002), 청송심씨대동세보간행위원회.
『숙명신한첩』,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 웹페이지, <http://archive.aks.ac.kr>.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웹페이지, <http://sjw.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웹페이지, <https://db.itkc.or.kr>.

【논 저】

- 김동준(2017), 『겨울을 향하는 풀벌레의 울음처럼 — 지산 심익운의 백일시집』, 파주: 태학사.
김수영(2015), 「효종(孝宗)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독서와 번역」,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김일근(1991), 『諺簡의 研究: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제3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노경자(2018), 「17세기 한글편지를 통해 본 왕실 여성들의 삶과 문화-『숙명신한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0, 한국고전번역원.
박경현(2012), 「심익운의 詩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원균(2016), 「芝山 沈翼雲의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남희(2017), 「조선후기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인간의 특성과 의미」,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장요한(2019),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원고 접수일: 2021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1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ABSTRACT

Shim Ik-woon's "Yeolseongechaleonseobal"
(列聖御札諺書跋) and *Sookmyungshinhancheop*
(淑明宸翰帖)

Kim, Soo-Young*

The 18th century literary writer Shim Ik-woon's "Yeolseongechaleonseobal" (列聖御札諺書跋) is an epilogue included in his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Baegiljib* (百一集). Although not known until now, "Yeolseongechaleonseobal" is an epilogue of *Sookmyungshinhancheop* (淑明宸翰帖). *Sookmyungshinhancheop* is a letter book that consists of a collection of Korean letters received from kings and queens by Princess Sookmyung (淑明公主), the third daughter of Hyojong (孝宗).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full text of "Yeolseongechaleonseobal", the key bibliographical information regarding *Sookmyungshinhancheop* was newly revealed. In addition, Shim Ik-woon's critique of Queen Inseon's Korean letters in the "Yeolseongechaleonseobal" was examined, and it was considered to be a form of 'letter critiqu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Seoul